

## 자영업자의 몰락

매출 부진에 쌓이는 부채... 최저임금 인상까지 '삼중고'  
공급과잉 폐업·창업 악순환... 자생력 강화 대책 절실

“매출은 갈수록 줄어들고, 인건비는 인상되는데 방법이 없네요. 정말 죽을 맛이네요”.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에서 편의점을 운영중인 A씨는 요즘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광주의 대표적인 중심 상권인 충장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상점 곳곳이 폐업하면서 ‘임대’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점포들이 상당수다. 일부 점포는 1년 사이 업종과 주인이 2~3번씩 바뀌는 일도 다반사다. 특히 폐업을 하려 해도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주고 입점했던 권리금까지 포기하며 폐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빚수집을 운영했던 B씨는 “매달 적자운영을 피하기 위해 가게를 내놓았는데, 1년6개월이 넘도록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월세만 내고 있다”면서 “권리금을 아예 포기하고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매출부진과 늘어만 가는 부채, 여기에다 최저임금 인상이란 ‘삼중고’를 만난 자영업자들이 하루 하루 힘든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업종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다, 내수침체에 따른 매출부진과 가파른 급리인상 속도는 창업 초기부터 빚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자영업자의 목을 죄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앞세운 새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방침에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숫자는 급격히 줄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자는 45만5000여명으로, 전년동기(46만2000여명)에 비해 7000명(1.5%포인트)이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580만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84만명이 문을 닫았다. 반면 110만명이 새롭게 자영업으로 진입했다. 이처럼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데도 새로 문을 여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은 창업자 상당수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폐업과 창업’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자영업자에게 숨통을 죄고 있다. 올해 대비 16.4%나 급등한 753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자영업자의 전직 또는 폐업을 부추기는 최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과도한

빚부담 속에 창업을 했지만, 매출 감소에 따른 적자 폭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 인상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현실성있는 전방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자영업자의 전직을 도와 난립을 막는 동시에 특화업종을 육성해 자영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옛 도청복원 약속 도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옛 도청 5·18 당시 모습 복원한다

도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등과 간담회를 열고 “민평 복원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차원을 넘어 당연히 할

다.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어 “대책위가 복원을 요구한 민평(6개 공간) 모두를 복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민평을 구성하는 옛 전남도청·회의실·별관, 경찰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이 복원 대상이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복원 촉구 농성 중인 대책위의 의견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입장의 재확인이다.

민평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부, 광주시, 대책위 등이 참여하는 복원 TF, 안전 전문가 TF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 장관은 “지어진 지 60여년 된 건물 등을 지탱하기 위해 철재 프레임이 설치돼 있고 광주항쟁 전시콘텐츠 등이 전시돼 있는 만큼 복원에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며 “문화부, 광주시, 대책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원의 주체는 문화부와 광주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평은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등 6개 5월 관련 유적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전당측은 광주항쟁을 예술로 승화한 ‘열흘간의 나비떼’ 등 전시

콘텐츠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계엄군의 총탄 흔적과 시민군 방송실 등의 원형이 훼손됐다며 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을 촉구해왔다.

한편 5·18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대에 조성되는 민주인권기념파크는 최근 청와대가 사업 추진 근거 미흡과 콘텐츠 재조정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사업 계획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문대통령 “5·18 발표명령 규명할 수 있다”

국방부 업무보고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방부가 당시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전일빌딩 기총사격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보면 발표명령에 대한 규명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군 발표내용을 믿지 못했지만 이번 조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계기를 만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운영한 국민소통수석처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 한 만큼 우리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라고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남한이 거의 45배에 달하지만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그런 자생력을 갖고 있느냐”며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우리 군의 전력이 뒤떨어지거나 군사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때가 이르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5·18 특별법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현충원 참배... 공식 일정 시작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는 28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관련기사 3면>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신임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북을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미래를 향해 전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안 대표는 이어 고(故) 김대중·이승만·김영삼·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혁신위의 안을 계승해 더 발전시키겠다”며 “제2차당위원회를 만들어 더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분명한 원칙과 명료한 대안을 갖고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장진영 수석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께서 51% 당원의 지지로 대표로 당선 되셨지만 나머지 49%의 당원들과 정동영, 천정배, 이연주 후보 등도 보듬고 가야 한다”며 당의 결집과 통합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 일각 신문 가운데 가장 먼저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갖고 “적극적 소통을 통해 당의 결집과 통합을 이루겠다”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국민의당의 시간을 할 것이며 올해 내 두 자리 수 지지율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하겠다”며 “제2차당 수준의 개혁과 폭 넓은 인재 영입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힘을 기르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없이 개헌은 안 된다”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권력구조는 중립제를 토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안 대표는 “올해 내로 최대한 빨리 공천 료를 만들겠다”며 “정치 신인 30% 공천과 함께 전국 시·도당을 제대로 정비, 중앙당과의 균형과 견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번엔 개고기서 항생제 검출 ▶ 6면

문화·예술로 태어나는 운동주 ▶ 18면

박성현 캐나다 오픈 역전 우승 ▶ 20면

수시모집 ▶ 9.11(월)~15(금)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리나라의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은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율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리스티오 및 전곡 백화점, 아모레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리스티오: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